

# “전라도 천년 혼 가슴에”...여수 청소년들 이순신 정신 배웠다

‘충무 청소년 아카데미’ 50여명 참가  
난중일기 바탕 나만의 기록일지 작성  
진남관 둘러보고 거북선 체험·답사  
도전정신 계승하고 리더십 키워

전라도 천년의 혼을 담은 ‘여수 충무 청소년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8일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여수 충무공 아카데미는 올해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전라도의 영웅이자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을 통해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는 청소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여주시와 광주일보, 인재양성 전문 기관인 (사)지역미래연구원이 함께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충무 아카데미는 지역 청소년들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명언으로 잘 알려진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창의력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미래 인재양성에 초석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첫 프로그램은 ‘이순신 리더십 배우기’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호남을 기반으로 수적 열세를 딛고 어떻게 휘하 부하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50여명의 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이날 이순신 장군의 생전 명언을 통해 리더의 책임감과 소통 방법은 물론 임진왜란 당시 자신에게 적



여수 충무 청소년 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8일 전라좌수영 본영이었던 진남관앞에서 충무공의 정신을 기리며 기념촬영을 했다.

대적이었던 선조로부터 신뢰를 얻는 과정을 알아보고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진 순서로 청소년들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나만의 기록일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충무공의 간절한 애국심을 느끼고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의 꿈과 미래 이야기인 기록일지를 방편에 직접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또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지휘소인 여수 진남관과 이순신광장 거북선을 체험·답사하고 ‘리더의 조건 알아보기’ 프로그램 시간도 체험했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가한 김예빈(진남여중 3학

년)양은 “성웅 이순신 장군이 여수와 호남을 기반으로 왜군을 물리친 역사적 사실을 아카데미를 통해 새롭게 알게돼 좋았다”며 “어려움을 딛고 나라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책임을 다하는 미래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은 “학습형 전문 프로그램인 여수 충무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호남을 중심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그 간절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충무공의 호국 정신이 깃든 역사를 융·복합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여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충무 청소년 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8일 이순신광장에 전시된 거북선 체험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여수 제일병원에 부정맥·심혈관 치료 센터 개소 늘어나는 의료 인프라...시민 건강 지킨다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인 여수시가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건강과 행복지킴이 역할을 본격화 하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성·아동 전문 예술병원 개원과 전남 최최초인 부정맥·심혈관 치료 센터가 여수 제일병원에 문을 열었다. <사진>

시는 이처럼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인프라가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 제일병원 부정맥·심혈관 치료센터는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지역 환자들을 직접 치료할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실제 부정맥 등 심장질환의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과 고도로 숙련된 전문·의료장비가 갖춰진 심장센터에서만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여수제일병원 부정맥·심혈관 치료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각광 받고 있는 이유다.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역 심장질환 환자들은 제대로 된 전문 치료시설 부재로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광주·서울 등에 위치한 대형병원을 이용 할 수밖에 없었다.

제일병원 심혈관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이우석 의학박사는 서울아산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서 오

랜 시간 성공적인 수술을 시술해 온 최고 전문가다.

또 제일병원이 거액을 들인 냉동수술기(Cryo ablation)는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열려 치료하는 이 분야 최신 기기로 광주·전남 최초,국내 4 번째다. 여기에 혈관내 초음파 장비와 심근분획혈류 예비력 검사장비도 갖춰 허혈성 심질환 환자 시술에 안전성을 확보했다.

여수시는 이번 제일병원 심혈관 센터 개소로 심혈관 관련 지역 환자들이 대형병원 방문을 위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골든타임 확보로 손가락을 다루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 웅천지구에 개원한 예술병원은 여성·아동 최신 장비와 산후조리원을 갖춘 여성·아동 전문병원으로 최근 지역 내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20%를 할인해 주는 협약을 여수시와 체결했다.

여수시는 또 여주시 의사회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시민 건강·행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박람회·보건행정과·공영개발과·관광과 등 4개과가 참여해 웅천지구 개발지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여수시 대표적 민관협력 복지사업 ‘11호 희망 하우스’ 탄생

여수시가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인 지역민 후원을 위해 민간후원을 이끌어 내면서 ‘여수시 11호 희망 하우스’를 제공했다.

협판식은 최근 여수시 연동동 희망하우스에서 한상용(주)LG화학 여수 VCM 공장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신현숙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수시 희망하우스는 여수시의 대표적 민관협력 복지사업의 하나로 민간후원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민간 29개 기관으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의 후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냈으며 지금까지 11곳의 희망하우스를 준공했다.

이번 11번째 희망하우스의 주인공은 선천성 하지마비가 있는 자녀 및 부모 가정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 자녀를 위한 화장실·욕실 실내 설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여수시는 11호 희망하우스 가정을 위해 여수LG화학 VCM 공장의 지원(1000만원)을 이끌어 내면서 16일 동안 창호시공부터 화장실 공사, 보일러 설치, 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희망하우스 탄생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LG화학 여수VCM공장 나눔미봉사단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감장봉사), 명절지원, 나들이봉사, 목욕봉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Asia Culture International Photo Contest  
Prize Exhibition

2018.12.11. - 12.25.

www.asiaphoto.kr

# 아시아문화 국제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메이커스페이스 커뮤니티라운지

개막식 및 시상식  
2018.12.11. 화 2:00 PM

주제전  
아시아문화원류 아카이브사진전 [아시아-in]

특별초대전  
임종진 특별사진전 “사는 거이 다 똑같디요”

주최/주관 (사)아시아문화, (주)아는컴퍼니 후원 아시아문화원류 Asia Culture Institute